

엘로스톤 독서 활동지 <풍경편지>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글 이채린 그림 김규희

교과 성취기준 연계 (해당 학년 · 과목 · 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4학년 국어 -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 5-6학년 국어 -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 3-4학년 사회 -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곳
- 3-4학년 사회 - 미술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교사 및 양육자용

유명 관광지에 가면 그곳의 풍경을 담은 엽서를 꼭 판매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 엽서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걸까요? 낯설지만 멋진 풍경을 마주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나 새롭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그림책 속 아이처럼요.

그림책 속 아이는 미국으로 이사를 가 사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운 할머니께 편지로 전하죠. 아이가 묘사하는 ‘붉은 물감이 똑똑 떨어질 것 같은 빨간 노을, 하늘까지 모래가 뿔어 있는 광경’을 보고 있다면 저절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평소에 풍경을 얼마나 살펴보며 지낼까요? 아이의 이야기는 바쁜 일상 속 내가 놓치고 있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잠시 창밖을 내다볼 여유를 만들어주고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며 늘 그리운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친구를 보며 나와 마음의 크기가 같았던 할머니를 떠올리고, 노을빛을 보면서 할머니가 오색실로 떠 주셨던 스웨터의 감촉을 추억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아이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할머니와 함께하는 아이를 보며 언젠가 나에게도 찾아올 이별에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의 일상과 여행이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여행도 순간순간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그리운 이가 있다면 지금 당장 연필을 들어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소리 (좋아서하는그림책연구회, 서울 송례초등학교 교사)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운영진으로 그림책 애호가들과 온·오프라인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실 속에서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마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책을 읽기 전에 *

미션 1 : 표지 보고 질문하기

어린이용

표지 보고 어떤 내용일지 예상하기



표지 속 풍경은 어디일까요?

나도 표지처럼 어딘가로 떠나 본 경험이 있나요?

표지를 보고 풍경편지는 어떤 편지일지 예상해 봅시다.

* 책을 읽고 난 후 *

미션 3 : 나만의 풍경편지 쓰기



아이가 멋진 풍경을 할머니께 소개한 것처럼 내가 지내는 곳의 멋진 풍경을 그리고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ck green border, intended for drawing and writing a postcard.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설명서❖

3가지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과 주변에 대해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의 마음을 들여봐 주세요.

아이들은 새로운 풍경, 장소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글로 쓸 수 있도록 이 책을 소개해주세요. 생생한 표현으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을 통해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고 아이와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보세요.

- 여행을 떠나기 전 혹은 여행을 다녀와서
- 가족과 함께 한 과거를 추억하고 싶을 때
-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기억하고 싶을 때
-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을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표지 보고 어떤 내용일지 예상하기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산과 언덕,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 표지만 보아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아이와 함께 지난 여행을 추억해보세요. 이후에 가고 싶은 여행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 속에서는 어떤 풍경과 편지가 펼쳐질지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그림책 속 아이가 내가 된다면?

그림책 속 아이는 그리운 할머니에게 내가 만난 새로운 풍경과 나의 생활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아이 역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려 나를 소개해봅시다. 그리운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반려동물, 심지어 물건이어도 괜찮아요. 떠올린 그리운 이에게 내가 사귄 친구와 비밀공간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설명서❖

3가지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과 주변에 대해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미션 3: 나만의 풍경편지 쓰기

풍경편지를 쓰기 위해 내 주변의 풍경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색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정든 풍경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풍경편지를 그리고 쓰며 나를 한층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